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안전하게 즐기세요!

- 해외여행 전 홍역·A형간염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손씻기·음식 익혀먹기·끓여먹기 등 개인위생 수칙 실천하세요
- 야외 활동 시 모기기피제와 밝은 색 긴팔 옷을 준비하세요
- 귀국 후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으면 Q-CODE 또는 검역관에 알려주세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오는 6월 11일 개최되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해당 지역의 주요 감염병 발생 상황을 분석하고 홍역과 모기매개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이번 월드컵은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 16개 도시에서 개최, 대한민국(A조) 경기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와 몬테레이 지역에서 진행됨(월드컵 기간 : '26.6.11.~7.19.)

월드컵 참가자 증가에 따라 현지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감염병 발생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우리 선수단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감염병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재차 안내하였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홍역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할리스코주(과달라하라)는 멕시코 내 발생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공동 개최국인 미국과 캐나다 역시 지역별 집단발생과 산발적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 멕시코는 '26년 신고사례 총 26,087명(인구 10만명당 발생률 8.27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25년 발생률 4.96명), 미국은 '26년 1,952명으로 유행 지속 중임('25년 총 2,288명)(5.25 기준)

질병관리청은 월드컵 참가 예정자에게 출국 전 홍역 예방접종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멕시코는 A형간염 풍토 지역으로 오염된 식수나 음식을 통한 감염 위험이 있어 A형간염 백신 접종도 함께 권고하였다.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p style="text-align: center;">홍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역 백신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백신 접종 - 면역의 증거*가 없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적어도 1회 접종 * 면역의 증거: 1967년 이전 출생자, 홍역 확진을 받은 경우, 홍역 항체가 확인된 경우, MMR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 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가능 (어린이 표준접종시기: 1차접종 생후 12~15개월, 2차접종 4~6세)
<p style="text-align: center;">A형간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대상: 북중미지역 여행자, 월드컵 선수단 및 응원단 등 ▶ 접종기준 1) 만 40세 미만은 항체검사 없이 백신접종 권고 ※ 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가능 (어린이 표준접종시기: 생후12~23개월 1차접종 후 6개월 뒤 2차접종) 2) 만 40세이상 대상은 항체검사 실시 및 항체가 없는 경우 접종 권고 (1차 접종은 여행 계획 즉시 접종, 불가피한 경우 출발 당일이라도 접종) * 성인은 1차 접종 후 6~12개월(백신에 따라 6~18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 실시

아울러 멕시코 과달라하라 지역은 6월부터 우기(6월~9월)가 시작되어, 낮 기온이 27~31℃ 수준이며, 강수량과 습도가 증가(6월 평균 강수량 200mm)하여 모기 활동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는 뎅기열 풍토병 국가로, 남부 지역에서는 치쿤구니야열 발생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야열, 웨스트나일열,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감염병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경기 응원 등 장시간 야외 활동시에는 모기기피제를 반복 사용(평균 3~4시간 간격)하고, 밝은색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경기장 관람 후 야간 관광이나 습지·호수 주변 방문 시에는 모기 노출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다수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환자가 연중 보고되고 있으므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안전하지 않은 물, 노점 음식이나 덜익힌 음식 섭취를 피하고, 올바른 손씻기, 충분히 익힌 음식과 끓인 물 또는 생수를 마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최근 크루즈선의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집단감염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해당 질병이 유행하는 지역(아르헨티나, 칠레 등)을 포함하여 인근 국가 여행 시 설치류 노출이 가능한 장소*의 출입을 자제하고, 설치류의 소변·분변·타액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주거지·창고·선실·캠핑장·농장·산림지역 등

더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발생 중인 에볼라 바이러스병* 유행과 관련하여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는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등 유행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 증상 모니터링 및 공항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여행보건 공지를 통해 여행자들에게 예방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유행지역(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등) 방문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현지에서 야생동물 접촉을 금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감염자의 혈액, 분비물 또는 체액에 오염된 물건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

또한 낮 시간대 폭염 환경 속 장시간 이동과 야외 응원 과정에서 **온열질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경기장 이동 대기, 응원 등의 일정이 겹치는 경우 탈수 등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 활동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

질병관리청은 귀국 후 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귀국 시 기침, 발열이나 발진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귀국 후 수일 이내 감염병 의심증상(발열, 발진, 근육통, 설사, 구토, 기침 등)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해외 여행지 방문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서도 감염병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건강한 동행,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



- 3 -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는 선수단과 응원객의 이동이 많고 장시간 밀집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감염병과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하다.”며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귀국 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 신고와 신속한 진료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감염병 발생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대책반 운영 체계를 지속·유지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6 FIFA 월드컵 개요
 2. 감염병 위험 상황분석
 3. 주요 감염병 예방수칙 및 예방접종 안내문(카드뉴스)
 4.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행동수칙
 5.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수칙

담당 부서 <총괄>	감염병위기관리국 위기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영준 (043-719-9050)
		담당자	연구관	구현숙 (043-719-9081)
			역학조사관	이혜련 (043-719-9066)
담당 부서 <협조>	질병감시전략담당관	책임자	과장	유효순 (043-719-7550)
		담당자	연구관	나경인 (043-719-7553)
			역학조사관	김희경 (043-719-7555)
			역학조사관	최시원 (043-719-7559)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성순 (043-719-7950)
		담당자	역학조사관	박신영 (043-719-7736)
			역학조사관	오정현 (043-719-7956)
	종합상황실	책임자	실장	김경호 (043-719-9300)
		담당자	조사관	김화미 (043-719-9382)
			주무관	주현동 (043-719-9370)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형민 (043-719-7140)
		담당자	연구관	김동근 (043-719-7150)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여상구 (043-719-7160)
		담당자	연구관	권정란 (043-719-7162)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옥수 (043-719-9200)
		담당자	연구관	김자은 (043-719-9210)
	감염병위기관리국 신종감염병대응과	책임자	과 장	민유정 (043-719-9100)
		담당자	역학조사관	이상은 (043-719-9120)
		담당자	역학조사관	장민정 (043-719-9139)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혜림 (043-719-8350)
담당자		연구관	이혁진 (043-719-8365)	
건강위해대응관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책임자	과 장	안윤진 (043-219-2950)	
	담당자	사무관	안대식 (043-219-2951)	

붙임 1

2026 FIFA 월드컵 개요

- 행사명 : 2026 FIFA 월드컵
- 기간 : 2026. 6. 11.(목) ~ 7. 19.(일) (39일간)
- 장소 : 미국(11개)·멕시코(3개)·캐나다(2개)(총16개 도시, 104경기)

행사명	2026 FIFA 월드컵(FIFA World Cup 2026™)
대회기간	2026. 6. 11.(목) ~ 7. 19.(일) (39일간)
개최국	미국(11개)·멕시코(3개)·캐나다(2개) 16개 도시, 104경기
한국 조편성	A조(체코, 멕시코, 남아공)
예상 응원단 규모	선수단 약 200명, 공식·응원단 등 포함 약 3만명 이상 예상



□ **감염병 위험 상황분석**

- (홍역) 일반국민의 위험은 낮으나, 고위험군*에서는 제한적 전파 및 중증 가능성 있음

* 예방접종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임산부, 면역저하자, 6세미만 영아는 특히 주의 필요

- (매개체감염병 및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현지 감염 가능성은 있으나, 국내 유입 후 지속 전파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감염병 상황평가**

▶ (홍역)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홍역 유행 중으로 지역별 집단감염, 산발적 발생이 지속 보고 중, 캐나다는 홍역 퇴치국 지위를 상실(25.11.)하였고, 미국과 멕시코는 WHO에서 지위 유지 여부 재평가 예정

▶ (매개체 감염병) 멕시코는 Dengue 4 국가로 최근 최근 주간 발생사례 감소 추세 (12주 1,114명 → 16주 612명), 남부 2개 주에서 Chikungunya 열 산발적 발생(15명) 보고(4.25.기준) 미국·캐나다는 Chikungunya 열·Dengue 비풍토병 국가로 대부분 해외유입으로 보고, 단, 미국의 모기·진드기 활동 시기(6-7월)로, 웨스트나일열, 라임병도 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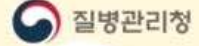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미국·캐나다 다수 식중독 사례 보고 중, 특히 멕시코는 전 지역에서 캄필로박터,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의한 식중독 지속보고, A형간염은 풍토병이며, 장티푸스는 멕시코 남부·농촌 지역에서 발생 보고

※ 멕시코 방문 시 A형간염 백신 접종은 필수 권고(미국·캐나다), 장티푸스 백신 접종 권고(미국)

▶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 풍토국가(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를 방문 여행객을 통한 산발적 유입 가능성은 상존하므로, 관련 지역 여행객 대상 안내 및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철저

※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은 국내에서 보고된 바 없으며, 주로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발생, 국내에서 발생하는 신증후군출혈열과는 같은 한타바이러스 속(Genus)이나 종류가 다른 바이러스이며, 매개체도 다름

2024.7.26.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첫째, 기침예절 실천

- ①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②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③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손씻기
- ④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둘째,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 ② 외출 전후, 식사 전후, 코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 비누로 손 씻으면, 호흡기 감염병 5명 중 1명이 예방 가능



셋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넷째,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① 2시간 마다, 10분씩 환기
- ②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기



다섯째, 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6대 예방수칙!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해 주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을 보이는 질환

주요 예방수칙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2025.10.24.



전세계 홍역 유행 중

해외여행 전·후 홍역 예방은 필수!

✈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 2회 접종력 확인*

- 접종 기록이 없거나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출국 최소 4주 전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 2회 접종

*접종력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여행 후

의심증상 시 의료기관 진료받기

- 귀국 후 발열·발진 시, 진료 및 해외여행력 알리기
-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 타인 접촉 최소화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비누로 30초 손씻기!

건강한 동행,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



- 11 -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2026.5.8. 질병관리청

출발 전 건강정보 확인은 여행의 시작!

'A형 간염'

해외 여행 전 꼭 알아야 할 감염병
: 최근 해외 여러 지역에서 환자 증가와 집단 발생

1/6

2026.5.8. 질병관리청

A형 간염이란?

- ▶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 물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
- ▶ 위생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감염 위험 증가
- ▶ 면역 없는 성인은 증상이 더 심하고 회복 기간이 길 수 있음
- ▶ 50세 이상, 만성 간질환자는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음

2/6

2026.5.8. 질병관리청

이런 음식·상황이 위험합니다

덜 익힌 음식, 해산물 날것

뚜껑으로 밀봉되지 않은 생수

길거리 음식, 음료
(밀키트, 샐러드, 과일 등 생 과일)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조리 과정이나 물의 위생은 알 수 없습니다"

3/6

2026.5.8. 질병관리청

안전한 여행을 위한 예방법

✕ 여행 전

A형 간염 예방접종

- ▶ 접종 이력 없거나 항체 없는 경우 적극 권장
- ▶ 총 2회 접종으로 장기 면역 형성
- ▶ 출국 2~4주 전에 접종 권장

☞ 여행 중

현지 생활(음식·물) 위생수칙

- ✓ 음식물 섭취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 끓인 물 또는 밀봉된 생수만 섭취
- ✓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먹기
- ✓ 과일은 씻은 후 껍질 벗겨 먹기
- ✓ 길거리 얼음 음료, 생과일 주스 피하기

4/6

2026.5.8. 질병관리청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발열·피로·식욕 저하

구역·구토·복통

황달
(눈·피부가 노랗게)

진한 소변

여행 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5/6

2026.5.8. 질병관리청

건강하게 준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다양한 질병관련 정보 알아보기

질병관리청 아프지맵로그

여행과 관련된 건강상담

여행의학 클리닉 활용법

6/6

2025.5.14 질병관리청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 (안데스바이러스 감염) 핵심 궁금증 7가지를 한눈에!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은 일반적으로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분변을 통해 접촉(노출) 시 감염됩니다.

이번에 확인된 한타바이러스 일종인 안데스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보고된 사례가 있지만, 코로나-19처럼 일상 생활에서 함께 지내는 감염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국외에 공출하는 핵심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역별 감염 경로부터 예방 시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게요.

1p

2025.5.14 질병관리청

Q1. 해외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국내도 위험한가요?

이번 사례는 남아 지역을 여행한 해외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사례로, 현재까지 국내 탑승객이나 내국인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WHO와 각국 보건당국은 접촉자 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일반 국민 대상 위험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지역 입국자 및 의심 증상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전례로서는 국내 일반 국민 대상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됩니다.

2p

2025.5.14 질병관리청

Q2. 코로나-19처럼 사람 간 전파가 되나요?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은 일반적으로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분변을 통해 접촉(노출) 시 감염됩니다.

이번에 확인된 한타바이러스 일종인 안데스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보고된 사례가 있지만, 코로나-19처럼 일상 생활에서 함께 지내는 감염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경로

-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 통해 오염된 환경(공간, 표면 등) 접촉(노출) 등 (주로 남미 지역에 서식하는 쥐)
- 확진환자와 밀접·장시간 접촉(노출) 등

3p

2025.5.14 질병관리청

Q3.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매우 위험한 질병인가요?

이번에 확인된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의 치명률은 20~35%(중대 5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감염 자체가 흔하지 않고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하며,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p

2025.5.14 질병관리청

Q4.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은 국내에서 알려진 '신증후군출혈열'과 같은 질병인가요?

두 질환 모두 한타바이러스 계열이지만 상세 바이러스 종이 다르며 발생 지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한타바이러스 또는 서열이 유사한 바이러스

이번 사례의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은 발열, 근육통, 두통, 호흡곤란 등이 주요 증상이며,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증후군출혈열(세균 감염병)은 신장 기능 이상과 출혈 증상이 특징입니다.

5p

2025.5.14 질병관리청

Q5. 해외여행이나 크루즈 여행을 피해야 하나요?

현재 일반적인 해외 여행이나 크루즈 여행을 제한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아르헨티나, 칠레 등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발생 지역을 방문할 경우, 설치류 노출이 가능한 장소(농촌, 산림, 캠핑장, 장기간 비어 있던 숙소, 창고 등)의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치류의 소변, 분변, 타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예방수칙

- 설치류 노출이 가능한 장소 출입 자제
- 설치류의 소변, 분변, 타액 접촉(노출) 주의
-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6p

2025.5.14 질병관리청

Q6. 귀국 후 의심증상 발생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행지역 방문, 발생지역(아르헨티나, 칠레 등) 내 설치류 노출 또는 최근 해외 크루즈선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관련 확진자와 밀접·장시간 접촉 후 42일 이내 의심증상이 있다면 1339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 시에는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주시십시오.

7p

2025.5.14 질병관리청

Q7.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현재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승인된 특이 치료제의 백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중증 진행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WHO도 조기 진단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p

2025.5.14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내 일반 국민 대상 위험도는 낮은 상황이며, 일상 생활에서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과 WHO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겠습니다.

9p

2026.5.26. 질병관리청

에볼라바이러스병 (분디부교형) 핵심 궁금증 한 번에 이해하기!

국내 유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떻게 감염되나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분디부교형 에볼라바이러스는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국민이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 7가지에 대해 답해 드립니다. 감염경로·증상부터 여행 시 주의사항까지 알려 드립니다.

1/10

2026.5.26. 질병관리청

Q1.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

사람에게 에볼라바이러스병을 일으키는 여러 바이러스 종류 중의 하나로, 처음 발견된 **우간다 분디부교(Bundibugyo) 도시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2018년~2020년 동일 지역에서 자이르(Zaire) 에볼라바이러스가 대규모로 유행하였으며, 이번 사례는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로 밝혀졌습니다.

구분	2026년(이번 사례)	2018년~2020년
바이러스 종류	분디부교	자이르
발생 지역	DR콩고 이투리 주 시카, 북키부 남키부 주로 확산 중	DR콩고 이투리 북키부 주
유행 규모	101명 환자 발생(사망 10명) <small>*인상사태 904건 추정 (5.25 기준 사망 수자료 변동 가능)</small>	약 3,300명 발생 (사망 약 2,270명)
치명률	30~50%	최대 90%
백신/치료제	없음	있음

2/10

2026.5.26. 질병관리청

Q2.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은 어디에서 유행하고 있나요?

2026년 5월초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DR콩고 북동부 이투리 주**에서 최초 발생하여 보고되었으며, 인근 지역인 **북키부 주, 남키부 주** 등에서도 발생 중입니다.

또한, 우간다에서도 DR콩고로부터 유입된 확진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3/10

2026.5.26. 질병관리청

Q3.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인가요?

전세계적인 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아프리카 중심의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유행에 대한 아래 위험평가를 통해 5월 17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하였습니다.

-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 향후 상황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 국가 간 확산 위험이 있을 경우
- 여행 또는 무역을 제한할 정도로 위험이 큰 경우

4/10

건강한 동행,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Q4. 국내 유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유행은 DR공고 이후라주 및 인근(잠정) 지역 중심으로 발생 중입니다.

다만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혈액-체액 접촉으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고, 발생지역과 국내 간 인적교류도 극히 제한적이므로 단기 내 국내로 직접 유입 및 지역사회 추가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5/10

Q5.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은 감염된 동물(박쥐, 원숭이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사망자의 혈액·체액 등에 접촉하는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소변, 침, 땀, 대변, 구토물, 모유, 뇌척수액, 정액 등

따라서 유행국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방문시에는 감염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감염 경로

	감염된 동물 → 사람 과일박쥐,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등
	감염된 사람 → 사람 -환자를 돌보던 가족 -장례식 참석자 -의료환경에서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6/10

Q6.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발열, 피로감, 심한 두통, 복통, 구토 증상을 보이며 이 외에도 설사, 근육통, 발진, 원인불명 출혈(이유를 알 수 없는 멍울형) 등이 감염 후 2~21일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증상

			
			
발열	두통	복통	구토
설사	근육통	발진	멍·출혈

7/10

Q7.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현재 DR공고 및 우간다에서 유행 중인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에 승인된 백신과 치료제는 없고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지만, 해외방문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 아픈 사람과 접촉 자제
-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 및 장례식 참석 자제
- * 참석 필요시 개인보호구 착용 (특히,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사람자 및 의심자 접촉 금지)
- 야생동물 직접 접촉 및 섭취 금지 (과일박쥐 및 원숭이 등)

해외방문 시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예방수칙

				
아픈 사람과 접촉 삼가기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및 장례식 참석 시 개인 보호구 착용	야생동물 직접 접촉 및 섭취 금지

8/10

Q8.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감역관리지역 (DR공고, 우간다, 남수단, 콩고, 에티오피아)을 방문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입국 후 21일 이내 의심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 방문 전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환의 신고 하시고, 진료를 받을 경우 해외방문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10

질병관리청이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DR공고 및 우간다의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유행 상황과 관련하여 해외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중점감역관리지역 지정 및 의심환자 신속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등 감역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겠습니다.

10/10

어디에나 있는 모기매개감염병을 조심하세요!

해외 발생



덴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아열,
웨스트나일열, 말라리아



100000%

100000%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1/9

100000%

100000%

여름철 폭염일수 증가

매년 온열질환자 지속발생

2/9

100000%

100000%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추정 시인은 대부분 열사병

3/9

100000%

100000%

폭염시 야외작업 자제!

낮 12시~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최근 10년간(2016~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45.4% 발생 48.7%는 낮 시간에 발생!

4/9

100000%

100000%

8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 인구 10만명당 응급환자수

5/9

100000%

100000%

어린이, 학생도 주의 필요!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 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6/9

100000%

100000%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수분 섭취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9 구급대 요청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병원으로 후송

※ 의식이 없을 때 목도를 마시게 하면 질식위험이 있으니 주의 필요

7/9

100000%

100000%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 시원하게 지내기**
시원 자주 쐬기
오후 시 행해! 자! 한! (행! 산! 모! 지!)
덜렁덜고 뉘은 세! 밤의 가! 배운 뉘! 없! 기!
- 물 자주 마시기**
물! 손! 놓! 지! 일! 어! 도! 규! 칩! 력! 으! 로! 지! 주! 수! 분! 섭취! 하! 기!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대! 문! 시! 간! 대! 휴! 식! 하! 기!
건! 강! 상! 태! 를! 선! 대! 대! 활! 동! 상! 도! 조! 절! 하! 기!

8/9

100000%

100000%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9/9

건강한 동행,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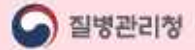
- 마스크 착용 및 개인적인 위생(손 씻기 등) 수칙 준수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보건인력 환자 관리 시 상황(치료, 간호, 이송 등)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감염 예방조치 등의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

◆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 방문 전,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유행 또는 발생지역(아르헨티나, 칠레 등) 확인
- 농촌·산림·캠핑장·장기간 비어 있던 숙소·창고 등 설치류 노출 가능 장소에서는 환기, 소독, 개인보호구 사용을 우선 권고
- 설치류에 오염된 지역에서 안전한 청소 방법 사용(설치류 분변을 건식으로 쓸거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행위 금지, 청소 전 오염 지역을 수분으로 충분히 적시기)
- 방문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건물 내 설치류 유입 차단(틈새 봉인)
- 설치류의 사체, 배설물, 타액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
- 식품을 밀봉 용기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설치류 유입 차단(틈새 봉인)
-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의심되는 사람과 접촉 금지
 -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과 접촉 금지
 -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과 충분한 거리 유지하기
 -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의 물건 등과 접촉 금지

◆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귀국 후 6주간 발열·근육통 등 관련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먼저 상담 문의
-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의료기관 진료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Protect yourself from Ebola,
and make sure to follow these essential steps!**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을 여행 중이신가요?

Traveling to an Ebola-affected area?

-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또는 사람의 혈액, 체액 등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
Ebola spreads through direct contact with the blood, body fluids, or tissues of infected animals or people.
- 초기에는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 및 원인불명 출혈 등을 호소**
Early signs include fever, loss of appetite, fatigue, and rash, followed by vomiting, diarrhea, abdominal pain, and unexplained bleeding.
- 국내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
There is no available vaccine or treatment in the country, so prevention is crucial!

에볼라바이러스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How to protect yourself from Ebola!



야생동물 직접 접촉 및 섭취 금지
(포유류 및 생 과일/과일 등)
Avoid direct contact with and consumption of wild animals
(including fruit bats and raw fruit bat products)



의료기관 방문 및 장례식 참석 자제, 참석 필요 시 개인보호구 착용
(특히,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자 및 의심자 접촉 금지)
Limit visits to medical facilities and funerals. If you must attend, wear protective gear.
(Avoid contact with anyone suspected of having Ebola or who has died from it.)



아픈 사람과 접촉 삼가하기
Avoid close contact with sick individuals.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Wash your hands with soap for at least 30 seconds.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Avoid touching your face with unwashed hands.

※ 여행 후 자신의 건강상태 21일간 관찰, 감염병 의심증상 있을 경우 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

※ Monitor your health for 21 days after travel. If you show any symptoms, call 콜센터 for advice.